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6. 1.(목) 11:00 < 6.2.(금) 조간 > 배포 2023. 6. 1.(목)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세계(글로벌)로 확대

산업부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세계적(글로벌) 기업, 세계적(글로벌) 클러스터와의 협력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1일(목) 14시 30분 대한상의(8층 대회의실)에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기업, 소재·부품·장비 관계기관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국내 협력모델을 기존 1수요-1공급 기업 중심에서 다(多)수요-다(多)공급 기업으로 고도화하면서, 국내 공급기업과 미국·독일 등 해외 수요기업과의 협력, 국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해외 클러스터 간 연구·실증 협력 등 세계적(글로벌) 협력모델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과도 국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세계적(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탄소 중립 등 양국이 공동으로 당면한 과제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개발(R&D), 제3국 공동 진출 등의 기업 간 협력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은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사업화를 밀착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확산에 이바지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19년부터 총 64건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율촌화학의 이차전지 파우치 기술 개발과 공급계약 체결 사례, 미코세라믹스의 반도체 공정용 장비 국산화 사례 등 협력모델 우수 성과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업계는 세계적(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예산의 지속 확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세계적(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과감한 기술 개발과 촘촘한 소재·부품·장비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글로벌) 공급망 새판짜기를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확대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5. 25일 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 안정 지원 사업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으뜸 기업 교류회 등 소재·부품·장비 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 총괄 >	산업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910)
		담당자	사무관	황채은 (044-203-4913)
	산업정책관 소재부품장비개발과	책임자	과 장	김영윤 (044-203-4920)
		담당자	사무관	서주원 (044-203-49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소부장 협력모델 개요**

1. 개요

□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공급망 전주기 협력**을 '협력모델'로 승인하여 등 **패키지*** **지원**

* 소부장 R&D, 사업화 지원(산업부), 정책자금(금융위), 세제(기재부), 인프라(과기부), 인허가·환경규제 특례(고용부, 환경부 등) 등 관계부처 합동 지원

□ 기술로드맵, 구매력 등을 보유한 **수요기업이 초기 개발단계부터 참여**하여 **소부장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조기 사업화** 효과 발생

2. 추진성과

□ **(지원현황)** 반도체, 이차전지 등 **7大분야 64건**('19.11월~)에 대해 **수요기업 참여를 전제**로 **공동 R&D·규제특례·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

○ **(R&D)** 64건(산업부 38건, 중기부 26건) 약 6,030억원 지원

○ **(비R&D)** 환경·노동 규제특례, 세제·금융, 인력 등 약 230건 지원

□ **(추진성과)** 선정된 64건 中 **3건은 R&D·사업화를 통해 자립화에 성공, 4건은 생산시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57건은 협력모델 진행 중**

< 소부장 협력모델 주요성과 사례 >

협력모델	협력기업	수요기업	핵심 성과
이차전지 파우치	**율촌화학** 등	L社	- **[자립화]** 얼티엄셀즈(LG엔솔+GM 합작)에 6년간 약 1.5조원 규모의 파우치 공급 계약 체결
CVD 장비용 정전척·히터	**미코세라믹스** 세라믹기술원 등	S社	- **[자립화]** 정전척·히터 국산화 및 매출 350억원 달성 * 정전척 54억원, 히터 296억원 달성
음극재용 인조흑연	**포스코케미칼** 동양환경 등	L社	- **[생산시설 구축]** 인조흑연 음극재 年 0.8만톤 생산역량 확보 및 '23년 年 1.8만톤으로 확대 예정
희토류 영구자석	**성림첨단산업 등**	H社	- **[생산시설 구축]** 국내 최초 희토(네오디뮴) 영구자석 생산공장 구축(투자) 및 국내기업 공급 협의 중

3. 협력모델 확대방안 ('23.4월,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

□1 국내 협력모델은 1수요-1공급기업 중심에서 **多수요-多공급기업**으로 확대

> **<국내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고도화 방안('22.10월, 새정부 소부장산업 정책방향>**
> ○ **(공통 수요) 공용·확장·파급성**이 큰 **원소재 및 공통기술은** 다수 수요기업이 동시에 참여
> ○ **(1차→2차 수요) 산업별 GVC 상** 1차 수요기업과 2차 수요기업 동시 고려

□2 글로벌 협력모델은 해외 수요기업과 해외 클러스터 단위로 확대

❶ 해외 수요기업이 주도하는 밸류체인에 국내 소부장 기업 협업

❷ 국내 특화단지(클러스터) - 해외 클러스터 간 연구·실증 협력

< 글로벌 협력모델 추진방안 >

	국내 기업 간 협력		국내외 기업 간 협력
기업	• 국내 수요기업의 기술로드맵 기반 공동 개발·실증R&D	+	• 해외 수요기업 기술로드맵 기반 국내 소부장 기업의 밸류체인 진출 지원 * 해외 수요기업 ← 해외 1차 벤더 ← 국내 2차 벤더 해외 수요기업 ← 국내 공급기업 + 공공연
클러스터	**국내 클러스터 내 협력**		**국내외 클러스터 간 협력**
	• 소부장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양산라인 개방 or 공동구축	+	• 해외 첨단산업 클러스터와의 기술협력, 양산라인 개방, 인력교류 등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 * 例: 국내 서울 바이오허브-스위스 바젤 바이오 클러스터 기술협력 MOU 체결('22.10월)

【 참고 :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6.1(목), 14:30~16:00 /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

○ **(참석자) 산업정책실장, 소부장 기업 11개사(社), 중견련, KEIT 등 20명**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산업공급망정책과장
- **(기업)** 소부장 주요기업(협력모델 참여기업, 으뜸기업 등)
- **(유관기관) 중견련, 중기중앙회, KEIT, KIAT, KOTRA, KITIA**

○ **(주요내용) 소부장 정책방향 및 협력모델 성과사례 공유, 업계 애로사항 청취**